

TRENI IN PARTENZA

destinazione	ORA	PLA	ORA	destinazione	ORA	PLA	ORA
FIRENZE	10.25	4	NETTUNO	11.55	15	NAPOLI C	12.10
MILANO C	11.10	3	ZURIGO	12.00	5	VAIRANO	12.13
IRUN	11.10	22	LA SPEZIA	12.00	20	FIRENZE	12.15
FRASCATI	11.35	25	PRIVERNO F.	12.10	16	CASSINO	12.15
VENEZIA	11.50	1	PORTOFINO	12.20	22	ALBANO	12.30

업체탐방

# U-City

## IT를 기반으로 한 미래 도시개발



**류한원**  
 (주)알바트로스플러스 대표이사  
 02-623-5034

(주)알바트로스플러스가 대전광역시 은행1구역에서 추진 중인 '퓨처렉스(Future-X)'가 복합도시형 유비쿼터스 개발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 U-시티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였다. 내진, 송도, 파주, 동탄, 광교 등 신도시 및 도심권을 중심으로 U-시티 구현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 되면서 '실질적인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알바트로스플러스 류한원 대표는 "IT를 기반으로 한 도시개발은 미래 도시개발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U-시티를 상용화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미래도시'를 수출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며, 미래형 복합도시 '퓨처렉스(Future-X)'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최첨단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주)알바트로스플러스가 추진할 국내외 개발 및 재개발 사업에 퓨처렉스의 성공모델을 이식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싶습니다."라고 유비쿼터스 도시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U-시티 건설이 성장 한계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건설과 IT가 융합된 거대 수출모델이라는 점에서 기술은 물론 문화 콘텐츠도 함께 수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미래사업"이라고 밝혔다.

### 퓨처렉스(Future-X) : 미래 도시의 시작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산실인 대덕연구단지 및 대덕R&D특구가 있는 대전에 건설될 '퓨처렉스'는 타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개발방식이 아닌 기존도시를 전면 재개발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개발로, 주거·상업·위락·비즈니스

스·호텔 등의 기능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복합용도개발이다(MXD)이다. 지상 60층, 지하 6층, 총 연면적 30만평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며 완공 후 중부지역 랜드마크로 떠오를 전망이다.

‘퓨처렉스’의 가장 큰 특징은 내력R&D특구 내 벤치기업들은 물론 국내 페이지 IT서비스업체인 삼성SDS·KT·LG CNS·LG 전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협업구조로 건설된다는 점이다. 현존하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집대성한 프로젝트로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의 U-시티 시범단지 구축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완성된 U-시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구축해 타 도시 및 해외 각국에 U-시티 도시모델을 수출하는 획기적인 수익모델 창출이 기대된다.



**(주)알바트로스플러스 :  
미래 도시개발의 개척자**

도시재생사업(일명, 뉴타운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남다른 노하우와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주)알바트로스플러스는 2002년 설립 이래 보라매노오동 지역조합사업, 인후주공 2단지 재건축, 금안주공 재건축, 우아주공 1단지 재건축, 나운주공 주택재건축 등 굵직한 도시재생사업을 깔끔하게 수행해 오면서 역량을 키워 왔다.

특히, 상업지역 개발에 대한 노하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퓨처렉스 이외에 청량리 군축지구(연면적 18만평), 옥산 신정드림타운(연면적 17만평), 유성 어뉴즈타운(연면적 26만평) 등 대규모 복합용도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포스코건설 등과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목포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목포 유달산에서 목포항까지의 지역개발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중국 북경 등에서도 다양한 복합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유 대표는 건설과 IT 기술이 융합된 U-시티 건설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이 될 것이며, 이러한 미래도시를 국내에서 건설하여 상용화한 이후에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U-시티를 해외에 수출하고 싶다는 포부를 덧붙여 밝혔다.

(주)알바트로스플러스는 부동산 권리 조사를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바이릿지, 분양 및 홍보 마케팅을 담당의 (주)아이군코리아, U-CITY건설의 PM을 전문으로 하는 유채널주식회사 등의 계열사를 두고 분야별 전문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경쟁력이다. 또한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그룹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시재생사업 전 과정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합 D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한익스트림스포츠협회장으로써 익스트림스포츠의 저변확대 및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Market Leader : (주)아이군코리아**

아이군코리아는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종합부동산 마케팅 전문회사이다. 도시 재생사업지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수주홍보는 실시간 정보제공이 가능한 자동화된 Win-Pro System으로 현장 변화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다.

부동산 개발의 최종단계는 개발부동산의 “분

양"이다.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지속적 정보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분량기획을 실천하여 혁혁한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광고홍보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실적 등은 아이군코리아만의 탁월한 경쟁력을 자랑한다.

### 권리조사 전문기업 : (주)바이릿지

(주)바이릿지는 부동산 권리보험에 따른 권리조사 및 부동산거래 에스ক্র로우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현재는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손해/생명보험회사 및 은행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부동산 관련 대출과 관련하여 권리보험 가입을 위한 권리조사를 하는 권리조사 전문기업이다.

### 유비쿼터스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래의 채널 : 유채널주식회사

금융SI사업과 디지털 방송시스템/디지털 오디오 시스템 사업 및 재건축/재개발 관리용 ASP사업과 Web개발툴(Eiger), 차세대 환율 정보단말기 사업, 그리고 분산식 고객관리시스템인 "Care Station"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금융 채널서버 및 Web단말기, 쌍용캐피탈 연계관리시스템, 조흥은행 외환단말기, 농협연체관리시스템, 농협신용사업통합시스템, 조흥은행금고서버업무, 농협여신 이미징 시스템, 농협연체관리 콜센터 시스템 등을 개발하였다.

### 대한민국 익스트림스포츠의 꽃을 피우다 - 대한익스트림스포츠협회 KESA(Korea Extreme Sports Association)

대한익스트림스포츠협회(KESA) 제2대회장으로 선출된 류한원회장은 젊은이들의 전유물로만 알려졌던 스포츠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 향상에 이바지하며, 건전하고 명랑한 기품을 진작시키고 더불어 신하 단체를 통괄 지도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

하는 단체로 추진하고 있다.

KESA는 지난 9월 IOC가 공식후원하고 100여개국에서 참가하는 제 4회 부산 세계 Trecx-Games대회(2008.9.26~2008.9.28)를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 성공적으로 치러 국내 익스트림스포츠 저변확대 신호탄이 되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익스트림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며 국제적으로 대한익스트림협회 위상을 크게 높여 스포츠 외교와 국익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경영포부와 사업계획에 대해 류한원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동산 분야에 있어 성장 한계에 도달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은 건설과 IT기술이 융합된 U-시티 건설이라고 봅니다. 2000년 이후 우리 회사는 그간의 노력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 첨단 IT산업이 연계된 U-시티 개발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IT기반의 미래도시인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진 은행동 '퓨처렉스'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미래도시 건설과 더불어 해외에 U-시티를 수출함으로써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게 목표입니다."



| 기술표준 2008.11